

맛 접목한 목포 항구축제 더 풍성해졌다

목포 9미대첩 탕·무침요리 22종 선보여 관광객들 호평 맛의 도시 알리고 축제의 품격 높이는 등 성공리 마무리

목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항구축제에 '맛'의 개념을 접목시켜 선보인 '목포 9미(味) 대첩'이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명칭만 항구축제지 '파시'를 제외하고는 항구를 대표하는 이렇다 할 콘셉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맛의 개념 도입으로 이 같은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부터 신선한 '목포 9미 대첩'은 지난 해와 달라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혀 축제 개막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9미 대첩은 소미더 9미 '이것이 목포 탕', 소미더 9미 '이것이 목포 무침', 대동 먹거리 나눔 '1897 회덮밥', 단품요리 맛보기 '목포 밥상'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 코너에는 유튜브와 블로그 10여명이 몰려들어 열린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들 대부분은 "목포가 맛의 도시인 줄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탕 요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내용의 멘트를 남겼다.

또 "맛의 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고 항구 축제의 품격을 높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5일 열린 소미더 9미 '이것이 목포 무침'에서는 낙지초무침, 전어무침, 꽃게무침, 밴댕이 무침, 준치회무침, 송어회 무침, 바지락 회 무침, 수육 무침, 꼬막초무침 등 9종(16개)을 직접 시식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관광객들을 매료시켰다. 이들은 모두가 수산물물을 이용한 무침 요리라는 점에서 감탄사와 함께 주목을 받았다.



목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항구축제에 '맛'의 개념을 접목시켜 선보인 '목포 9미(味) 대첩'이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소미더 9미 '이것이 목포 탕' 행사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이와 함께 무대 옆에 위치한 '목포 9미 스토리 전시관'에는 목포 9미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와 함께 모형이 전시돼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단품요리 공모를 통해 개발된 레시피 ('낙지 꼬치'와 '김 부각 낙지 찜')를 미술생 세프가 참여해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목포 밥상' 코너도 인기 속에 진행됐

다. 축제에 '맛'을 도입한 이번 실험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목포 9미 대첩은 '항구축제가 담아야 할 품을 넓히면서도 목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오래 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

목포시, 비전 선포

목포시가 지난 1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슬로시티 목포' 선포식을 갖고 '오래 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 비전을 선포했다. <사진>

또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슬로시티 목포 도(島),시(市),락(樂), 행복을 담다'를 제시했다.

슬로건의 의미는 섬과 바다 등 자연생태를 뜻하는 도(島), 근대문화유산 등의 과거와 지속 가능한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뜻하는 시(市), 예향의 도시를 뜻하는 락(樂)에, 다시 중의적 표현인 '도시락'을 통해 슬로시티푸드와 연계한 맛의 도시 의미를 담았다.

시는 비전과 슬로건 달성을 위한 4대 과제로 '균형과 조화의 미래형 도시 조성', '사람중심, 시민의 행복한 슬로라이프 만들기', '남만여행, 목포 슬로투어 상품 개발', '슬로시티 목포, 시민과 함께 알기'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시는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슬로시티 정책 추진의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근대역사문화 자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보존된 섬, 남도 맛의 으뜸인 맛의 도시 등 우리시가 보유한 매력과 자원들을 활용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슬로시티 목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바다 위를 나는 크루즈, 그 환상'이 시작되던 지난 달, 14만명이 목포를 찾았다. 염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지만 부당요금, 불친절 등 만반의 목소리가 여겨져서 터져 나왔다. 북항 유달산 스테이션에 탑승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한달간 14만명 탑승... 교통대란은 없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한 달

음식점 바가지·불친절 개선율

'바다 위를 나는 크루즈, 그 환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마디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탑승객은 평일 평균 4000~5000명, 주말에는 1만~1만1000명 수준이다. 주말엔 거의 만석으로 풀가동되는 셈이다.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탑승한 인원은 약 14만명(5일 현재)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탑승객 연간 150만명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목포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밀려드는 외지차량들로 인한 교통대란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탑승객이 유달산으로만 몰리지 않고 고하도로 분산됐기 때문이라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그동안 시는 비상체제에 돌입해 북항 공영주차장 내에 교통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7명이 상주하면서 해상케이블카 주변 교통상황을 특별 관리해왔다.

또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일 116명(2교대)의 교통통제 인력을 11개 주

요통제 지점에 배치해 주차 안내와 불법주정차 방지 활동을 펴왔지만 앞으로 이들 인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다른데서 불거졌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바가지요금·불친절 등의 민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또 너무 장시간 동안 탑승을 대기해야 하는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의외로 컸다.

이 밖에 검표와 탑승안내원의 운영 미숙과 불친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일시정지 상황 발생에 따른 불안, 주차장 운영(요금체계)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목포시는 관련 기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보건소는 '호객행위와 부당요금 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항 회센터 입구에는 '음식점 이용 안내부스'를 설치해 위생 감시원 등 30명을 배치해 가격·위생·친절 등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교통행정과 역사과속운전·육설·폭언·성희롱발언 등 택시 서비스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즉시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불친절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택시 9개 회사 운수종사자 829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친절교육도 이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항 3개 상인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민원인 가격표 요금 미준수, 과도한 인사(호객행위), 개인위생 미흡, 저울 눈속임 상행위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칼을 빼들었다.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목포시 홈페이지에는 전용 신고센터 배너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참 다행스럽다. 하지만 식당·숙박 등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로 환경, 가로경관 정비 등도 미리미리 신경 써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시장은 "목포가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를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해 12월에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경남 창원시, 경북 영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 서울 서대문구 등 목포시 자매결연 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조례 제정

목포시의회가 제2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제정됐다.

박용(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도시 내에 공원 부지를 확보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다. 세부적으로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담겼다.

한편 박용 의원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



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국민대통합을 위한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9. 10.25 (목) - 27 (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주최·주관: 광주일보, 매일신문사
후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